

기후리스크 TF 월례포럼 10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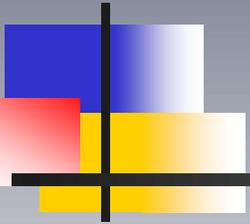
2022.10.25 화

코리안리11층 국제회의실

토론:

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?

[이동근]



석승훈

서울대 경영 SNUB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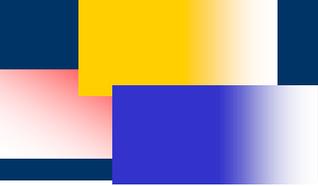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발표 요약

■ 기후변화

- 평균기온 상승
- 기후 재난/리스크: 빈도, 강도(심도) 증가
 - 생태계 피해, 식량부족, 감염병
 - 산불, 연안홍수(태풍, 호우), 도시열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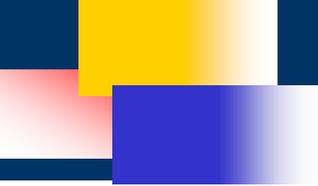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■ 대책

- 2100년까지 1.5°C목표(현재 대비 + 0.5°C): 파리협정(Paris Agreement, 2015)
- ESG, 탄소중립: 2050 Net Zero
- RE100 (Renewable Energy 100%)
- 기후탄력성(Climate Resilience)
 - 예방/준비 => 대응 => 복구
 - 기후목표 달성; 적응; 손실, 피해
 - 기후리스크 => 기후탄력성 붕괴 가능성 => 전환적 적응(transformation)으로 탄력성 회복
 - 기업 대응: 지배구조, 전략, 리스크관리, 지표 및 목표치
 - TCFD (Task Force on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s) 권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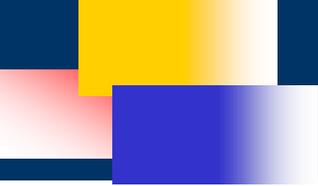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생각

- ESG
- 측정
- 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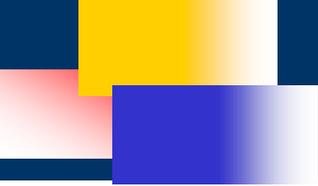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ESG

- 환경, 사회, 지배구조: Environmental, Social, and Governance
- 두 시선
 - 시선1: 경계선
 - 시선2: 정치 v 경제



ESG

- E 환경: 국가 v 국가
 - 환경 위험은 국경선을 넘는다: World Risk Society (Ulrich Beck)
 - (국제정치) 국가는 환경개선과 동시에 자국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. => 무역장벽
- S 사회: 국가(사회) v 기업
 - 사회와 기업 사이의 경계선: 사회적 책임 v 주주이익
 - (국내정치)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 요구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대립한다.
 - R. Edward Freeman (Stakeholder Theory) v. Milton Friedman (Shareholder Theory)
- G 지배구조: (I) 기업 이해관계자 갈등 → 주주 v 경영자 v 노동자 v ..
(II) (변형) 주주 이익 보호
 - 기업의 경계선 내부/주변: 주주가치 v 이해관계자가치
 - (기업정치)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대립한다.
 - 기업은 시장 거래가 아닌 권위와 명령 체계 (= 정치): Firm Theory (Ronald Coas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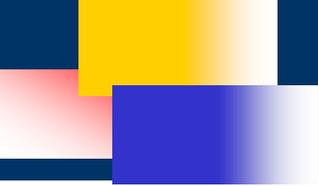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

ESG

- => ESG: 정치와 경제의 혼종.
 - 이상에 대한 욕구와 실질적 경제 욕구의 충돌과 타협.
- 권력과 시장의 충돌과 타협
 - 권력: 정부 규제, 법, 소비자운동..
 - 책임 있는 기업을 요구
 - 시장: 경쟁, 비용절감, 이윤추구
 - 이익의 내부화, 비용의 외부화

환경위험과 측정: 주가

- 주가, 주주이익: 정치의 대상이 된 투자 지표
 - 환경비용 외부화 => 주가에 (+)
 - 주가 => 환경위험의 생산
- (예) 기업의 생산원가 60; 환경피해 50; 판매가격 100
- 환경비용 외부화: 주주이익 합 = 45 (G)
 - 기업(주주) 이익 40 ($=100 - 60$) => 생산 => 주주이익 = 40
 - 환경비용 50 => 제 3자 복구비용 50으로 처리 => 제3자 이익(10%) = 5
- 환경비용 내부화(경제학 해결책): 주주이익 합 = 0 (S)
 - 기업(주주) 이익 -10 ($=100 - 60 - 50$) => 비생산 => 주주이익 = 0
 - 환경비용 0 => 제3자 이익 = 0
- → 주가 상승 (주주(기업)가치 증대) =><= 환경위험 감소



환경위험과 측정: GDP

- GDP: 정치의 대상이 된 경제 지표
 - 환경비용의 왜곡: 환경비용 = GDP에 (+)
 - GDP => 환경위험의 생산
- (예) 기업의 생산원가 60; 환경피해 50; 판매가격 100
- 환경비용 외부화: GDP = 150
 - 기업(주주) 이익 40 (=100 - 60) => 생산 => GDP = 100
 - 환경비용 50 => 제 3자 복구비용 50으로 처리 => GDP = 50
 - 사회후생 ~ -10
- 환경비용 내부화: GDP = 0
 - 기업(주주) 이익 -10 (=100 - 60 - 50) => 비생산 => GDP = 0
 - 환경비용 0 => GDP = 0
- → GDP 증가 (경제 성장) =><= 환경위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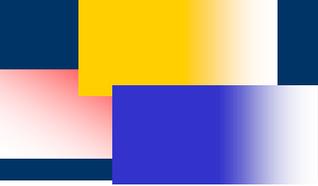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보험

■ 보험산업

- 보험상품: 화재보험, 풍수해보험, 기업배상책임보험, 생명보험, 건강보험..
 - (+) 위험의 전가/공유; (-) 위험감소 인센티브 저하 (도덕적 해이)
- 투자: ESG, 사회적책임 투자
- 경영: ESG 경영
 - 지배구조, 전략, 리스크관리, 투명성..

*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,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)

- 보험핵심원칙(ICP) ~ TCFD
 - ICP 7 – Corporate Governance, ICP 8 –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s, ICP 15 – Investment, ICP 16 – Enterprise Risk Management (ERM) for Solvency Purposes ICP 19 – Conduct of Business, ICP 20 – Public Disclosure
- *IAIS (2018), Issues Paper on Climate Change Risks to the Insurance Sector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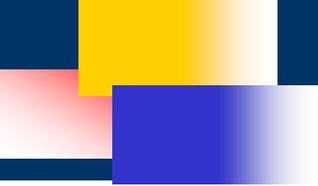
보험

- 사회보험, 사회안전망 중요성

- 환경위험: 대재해위험 => 보험상품화(시장) 실패
- 사회 복원력 => 사회안전망의 역할
- 환경위험 감소 정책과 연계
- 보험정신(= 사회적 연대)의 실천

- 재보험의 역할

- 위험의 통합 (pooling): 국가의 대재해 => 지구적 관점에서 상쇄 가능 => 지구적 위험 통합의 이점
- 국경을 넘는 환경 위험 -> 국가별 사회보험의 한계

- 
- 감사합니다.